

# 영어입말담화에서 발화의 의미기능과 발언적효과

박 창 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외국어학습에서는 회화를 많이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회화를 자주 하는것은 배운 외국어지식을 공고히 하는데도 좋고 외국어 학습분위기를 세우는데도 좋습니다.》

발화의 의미기능과 발언적효과에 대하여 정확히 밝히는것은 학생들에게 담화를 조직하고 해석할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데서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이 글에서는 발화의 의미론적다기능에 관한 선행한 연구와의 대비속에 입말담화에서 발화의 의미기능과 발언적효과에 대하여 분석하려고 한다.

담화분석학자인 클라크는 자기의 저서 《발화의 의미리해》에서 《일반적으로 하나의 발화는 한개이상의 의미기능을 가지고있기때문에 하나의 언어행위만을 수행하는것으로 특징짓기는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하였으며 다음의 실례를 들어 자기의 견해를 립증하려고 하였다.

레1: A: Would you like another one?

(하나 더 들겠습니까?)

B: Yes, I would, thank you, but make it a small one.

(예, 더 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조금 주십시오.)

클라크는 위의 실례에서 A의 발화를 정보를 요구하는 의미기능과 제의의 의미기능을 둘다 가지고있는 발화로 보았다. 그는 B의 응답을 구조적으로 분석하여 《Yes, I would.》는 정보를 요구하는 물음에 대한 응답으로, 《thank you》는 제의에 대한 응답으로 된다고 보았으며 그 원인이 련속적인 발화들로 구성된 회화의 담화문맥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다른 담화분석학자인 싸도크는 클라크

와 류사한 견해를 내놓았으며 자기의 저서 《회화함의》에서 발화의 의미기능을 문맥과의 련관속에서 분석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담화문맥은 다종다양하므로 일정한 발화의 의미기능을 하나로 한정하기는 불가능할것이다. 발화들은 고도의 모호성을 띠며 그 결과 그것들의 발언효과도 종종 모호한 경우들이 있을수 있다. 따라서 행동범주에 의하여 발화의 의미기능을 한정하려는것은 언어교제에 대한 비현실적이고 정확하지 못한 견해로 된다. 담화기능, 심리적기능, 사회적기능 등과 같은 일반적기능측면에서 발화는 의미적다기능을 가지고있다고 말할수 있다.》

클라크와 싸도크가 주장한 발화의 의미적다기능은 위에서 언급된 일반적기능이 아니라 언어행위에서 발화가 수행하는 의미기능을 의미한다.

일정한 언어행위로서 발화가 진행되는것은 발언행위가 진행된다는것을 의미한다. 발언행위는 말하는 사람이 달성하려고 하는 발언적효과와 엄연히 구별된다.

실례로 집에 찾아온 손님과 함께 있는 주인이 《Would you like another one?》라고 말하는 의도는 이미 음식을 많이 든 손님이 오래 앉아있는것을 주인이 싫어한다는 눈치를 채고 인차 떠나가게 하려는것일수도 있다. 음식을 권하는 발화는 발언행위이며 손님이 떠나가게 하는것은 발언적효과이다. 다시말하여 주인은 음식을 권하는 발언행위와 손님이 언제 떠나가겠는가를 물어보는 발언행위를 둘다 수행하지 않고도 손님을 떠나게 하는 발언적효과를 달성하였다고 볼수 있다.

《Would you like another one?》과 같은 발화가 질문과 제의의 두가지 의미기능을 수행하는것으로 보는 견해는 타당하다

고 볼수 없다.

그것은 첫째로, 질문은 일정한 정보를 요구하는 발화이며 제의는 듣는 사람을 위하여 말하는 사람이 자진하여 무엇인가를 하겠다는 의향을 나타내는 발화이기때문이다.

대화가 진행되는 상황이 어느한 연회장이라고 가정하면 B의 《Yes, I would.》는 서로 잘 아는 대화참가자들사이에 발화될수 있는 응답으로 볼수 있다. 그러나 A가 제의는 하지 않고 질문만 하였다고 볼수는 없다. 주어진 문맥에 의하면 A는 B의 응답후에 B에게 음료를 주어야 할 의무를 지니기때문에 여전히 제의를 한것으로 된다. A의 발화가 질문이라면 아무런 의무감도 내포되지 말아야 할것이다.

그것은 둘째로, 《Yes, I would.》가 제의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반드시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보아야 할 근거가 없기때문이다.

질문을 언어적응답만을 요구하는 언어행위로 특징짓고 제의를 듣는 사람이 그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경우 제의를 하는 사람에게서 비언어적행동을 예견하는 언어행위로 특징짓는다면 발화 《Would you like another one?》은 그런 특별한 문맥에서 질문과 제의의 의미기능을 수행한다고 볼수 없다. 왜냐하면 질문이 언어적응답만을 예견하며 동시에 그에 대해 긍정응답이 이루어지는 경우 비언어적행동을 예견한다고 보는것이 모순되는 견해이기때문이다.

례2: S bumps into M in the corridor of their office.

(S가 그들의 사무실 복도에서 M과 부딪친다.)

S: Would you like a piece of apple cake?

(사과향과자를 하나 들겠습니까?)

M: Er, have you GOT some?

(좀 있습니까?)

S: I've got some next door. I'll just get it.

(옆방에 좀 있습니다. 가지고오지요.)

선행한 연구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S의 질문에 대한 응답은 《Yes, I would, but have you got some?》이 되어야 하며 여기서 《Yes, I would.》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but have you got some?》은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어떤 제의를 하기 전에 말하는 사람이 사과향빵을 좀 가지고있다는것과 같은 제의의 선결조건의 하나로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실례에서 듣는 사람인 M은 선결조건이 시행된다는것을 확정만하는 응답으로써 자기가 S의 발화를 제의로 해석한다는것을 나타낸다.

례3: H: Why don't you just, can you come up here for a minute? Or, or you want me to come down there? (여기 잠깐 올라올수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내려오랍니까?)

X: No, ah I was just I was just um I'm calling from the Staff Club and I'm, I'm going ah home in a minute. I just wanted to see how we can get in touch. Do you want to call me at home whenever you're finished with your report?

(아니요. 나는 지금 직원구락부에서 전화를 거는데 인차 집에 갑니다. 다만 우리가 어떻게 련계를 취할수 있는가를 알고싶었습니다. 보고서작성이 다 끝나면 저의 집에 전화를 해주겠습니까?)

H: Alright. (좋습니다.)

X: I'll be there for the next mm mm twenty minutes or half an hour maybe.

(집에는 한 20분 아니면 반시간정도 있겠습니다.)

H: Alright. (좋습니다.)

예4: P: Hi, I'll leave my door open so you can check for TESOL questionnaire.

(방문을 열어놓을테니 들어와서 영어시험문제를 확인해보시오.)

S: Oh, thank you.(감사합니다.)

P: I'm off to a meeting right now.  
(지금 회의에 참가하러 가는 길입니다.)

S: Okay. Do you want me to lock it afterwards?

(알겠습니다. 후에 내가 문을 잠그랍니까?)

P: Ah alright. Yeah, I'll have my key.

(그래주세요. 열쇠는 내가 건사하겠습니다.)

S: Okay, thanks.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실례 3에서는 H의 응답으로부터 H가 《Do you want to call me at home whenever you're finished with your report?》를 질문과 부탁으로가 아니라 X에게 전화를 해달라는 부탁으로 해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H는 《Alright.》라고 말하여 그 행동을 수행하겠다는 의무를 지니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와 유사하게 실례 4에서도 발화 《Do you want me to lock it afterwards?》에 대하여 S가 문을 걸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Alright.》응답이 이루어졌다. 다시 말하여 P는 질문과 제의가 아니라 문을 걸겠다는 제의로서의 S의 발화에 응답한 것이다.

발화가 두가지 의미기능을 동시에 실현할 수 없지만 일정한 문맥에서는 모호성을 띠는 경우가 있으며 이것은 발화가 두가지 의미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는 전제로 된다. 그러나 모호성은 의미적다기능과는 현저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모호

성은 일정한 문맥에서 발화가 두가지 행위를 다 실현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이 어느 행위를 의도하는지 명백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의미적다기능은 발화가 두가지 행위를 다 실현시키며 말하는 사람이 두 행위를 다 의도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예5: B: He says, students, an' you know he keeps – he talks about students, they sh – the thing that they sh'd do is what's good.

(그는 대학생들에 대하여 계속 말했는데 대학생들이 좋은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소.)

A: For whom?

(누구를 위해서 말이에요?)

B: Well he says – he ...

(저 그가 말하기를 ...)

A: By what standard?

(어떤 기준으로 말이에요?)

B: That's what – that's exactly what I mean. He s- ... but he says ...  
(그게 바로 내가 하려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가 말하기를 ...)

우의 실례에서 A의 발화인 《For whom?》은 정보확인을 요구하는 질문일 수도 있고 동의를 요구하는 질문일 수도 있기 때문에 모호성을 띠고 있다. 처음에 B는 그 발화를 정보확인을 요구하는 질문으로 해석하고 해당한 정보를 확인하려고 한다. 그러나 A가 말을 중도에서 막고 다른 수사학적 질문으로 발화를 제기하자 B는 A의 발화를 동의를 요구하는 발화로 해석하고 그에 맞는 응답발화를 한다. A의 발화 《For whom?》이 의미적다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면 그것은 정보확인과 동의를 요구하는 질문으로 되어야 하며 A는 자기의 의도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B의 구체적 설명을 막지 말아야 할 것이다.

모호한 발화들 다시 말하여 이론적으로

꾸며내지 않고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언어 자료에서 모호하다고 볼수 있는 발화들을 보편적인 현상이라고는 볼수 없다. 이론적으로 꾸며낸 대부분의 모호한 발화들이 실천적으로는 절대로 제기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대화에 참가하는 담화참가자들이 고립된 문장으로서의 발화에 맞다들리지 않으며 일반적인 상황에서가 아니라 구체적인 문맥에 근원을 둔 실천적으로 단일한 구체적인 상황에서만 맞다들리기 때문이다.

듣는 사람이 발화를 발언자가 의도한 발언적효과와는 다른 의미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는 현상은 우선 듣는 사람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말하는 사람의 발화를 그가 의도하는것과는 다른 의미기능을 수행하는것으로 해석할 때에 나타난다. 듣는 사람이 발화를 발언자가 의도한 발언적효과와는 다른 의미기능을 수행하는것으로 본다고 하여 발화가 의미적다기능을 가지고있다고 말할수는 없다. 이러한 현상은 발화의 의미기능이 모호성을 띠 때에 가능하다. 발화 《For whom?》은 처음에는 동의를 요구하는것으로 해석되었으나 B에 의하여 무의식적으로 정보확인을 요구하는 질문으로 잘못 인식되었다.

듣는 사람이 발화를 발언자가 의도한 발언적효과와는 다른 의미기능을 수행하는것으로 보는 현상은 또한 발화가 다른 문맥에서는 다른 의미기능을 실현시킬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있을 때에도 나타난다.

레6: A: Would you mind taking the dust rag and dust around?

(먼지닦개로 먼지청소를 좀 해주겠습니까?)

B: No. (does not move)

(못하겠소.)

우의 실례에서 A의 발화의 의도된 발언

적효과는 두 담화참가자들에게 명백하다고 볼수 있다. 이 실례는 B가 방을 청소할것을 부탁하는 발화이다. 이 발화의 의미기능에는 아무런 모호성도 제기되는것이 없다. 그러나 B는 이 발화를 다른 문맥에서 정보를 요구하는 질문형발화로 인식하고 의식적으로 그것을 문맥밖에서 질문으로 해석한다. 이 대화는 A와 B가 서로 잘 아는 사이이지만 발화의 의미기능에 대한 듣는 사람의 해석이 의식적으로 잘못된 해석이거나 무의식적으로 오해한 해석이기때문에 어색한 대화로 된다. 그러나 이 발화가 의미적다기능을 수행한다면 절대로 어색한 대화로는 되지 않을것이다.

듣는 사람이 발화를 발언자가 의도한 발언적효과와는 다른 의미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는 현상은 또한 발화의 의미기능은 명백하지만 듣는 사람이 발언적효과를 오해할 때에도 나타난다.

레7: H: You sound terrible, you sound like a man.

(목소리가 말이 아니구만. 남자 목소리같애.)

M: Thank you. (고맙습니다.)

우의 실례에서 H가 M의 목소리에 대하여 기분에 거슬리는 말을 한다는것은 의심할바 없다. 이 발화의 의미기능은 명백하며 문맥이 달라져도 긍정적인 의미기능을 나타낼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 그러나 M은 귀에 거슬리는 말을 긍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말로 의식적으로 인식함으로써 야유적인 의미기능을 산생시키고있다.

실질적인 담화에서 발언적효과와 관련한 발언자의 의도는 하나이며 구체적인 문맥에서 해당한 발화가 수행하는 의미기능도 단 하나이다.

우리는 앞으로 영어담화에 대한 연구를 더욱 심화시켜 영어교수의 과학리론적태도를 더욱 튼튼히 쌓아나가야 할것이다.